

9_2. 활발한 작품활동과 사건_2 (1968~1970)

1968년(47세) 3월 13일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작곡하였고, 15일 「첼로 협주곡 제1번」을 작곡하였다.

3월 22일 「교향곡 제7번 “성서”(Symphony No.7 “The Bible”)를 작곡하였는데, 이 곡은 전7악장으로 악장마다 조명을 달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악장마다 두 개의 기본 음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복합화음을 사용한—우연성 음악·불확정성 음악을 처음으로 시도한 작품이다.⁹⁰⁾

이 작품은 각 악장의 표제에 따라 각각의 색채를 지정하여 각 악장마다 조명을 달리하도록 하였다. 제1악장 예언은 밝게, 제2악장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렌지색, 제3악장 그리스도의 고난은 흑청색, 제4악장 그리스도의 부활은 백색, 제5악장 그리스도의 승천은 청자색, 제6악장 성신의 강림은 청색, 제7악장 그리스도의 재림은 황색으로 표현하였으며, 특이한 것은 연주자가 주어진 기본 음정의 틀 속에서 템포, 시간, 리듬, 옥타브의 이동 등을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도록 한, 우연성음악, 불확정성 음악을 시도한 것이다.

3월 24일 「교향곡 제8번 “1967”」 작곡을 마무리하였는데, 이 곡은 전4악장을 통해 12음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양식으로 말하자면 대체적으로 신고전주의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제1악장 제1테마는 서양적인 12음음계로, 제2테마는 동양적인 5음음계로 작곡하여 현대적 테마와 한국적 테마의 조화를 이루는데 고심하였고, 특히 제2악장에 있어서 후반부는 전반부의 역행법에 의해 작곡되었다. 1967년은 제6대 대통령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른 해로서, 이 작품은 두 차례의 혼탁한 선거로 참담해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⁹¹⁾

같은 날 국립극장에서 <제2회 나운영 교향악 작품 발표회>를 개최했는데, 그 연주곡목은 다음과 같다.

1. Symphony No.8
2. Cello Concerto No.1
3. Piano Concerto No.2
4. Symphony No.7 “The Bible”



90)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7쪽.

91) 나운영 작품메모 ‘교향곡 제8번’

첼로 독주: 이방은
피아노 독주: 안희숙
관현악: 서울시립 교향악단
합창: 대한합창단
지휘: 나운영

4월 25일 「교향곡 제8번」과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이 KBS 방송에서 나운영 자신의 지휘와 안희숙의 피아노 협연으로 재연되었다.

5월 21일 1961년 6월부터 7년간 일해 온 **문교부 장학위원을 사임**하였다.

6월 6일 나운영은 오페라 「왕자호동과 낙랑공주」 스코어와 「Concerto Grosso for String Orchestra」, 칸타타 「만수무장」, 「Symphonic Poem “삼일혁명”」을 소각한다. 무슨 이유였을까?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소각한 데에는 매우 충격적인 동기가 있어야 할 텐데 당시 기록상으로는 특별히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다. 나운영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자서전 자료’에서도 그저 소각하였다고만 기록하고 있고, 자신의 작품목록에도 소각했다는 표시만을 하고 있다. 한번 쓴 작품을 몇 년에 걸쳐 지겨울 정도로 수정하는 버릇을 지닌 나운영이 위의 작품들을 수정하지 않고 소각해 버렸다는 것은, 분명 그에게 심적 갈등을 일으키게 한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나운영은 동자동 시절 바로 옆 동네에 불이 났을 때, 온 가족이 발을 동동 구르며 귀중품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 자신은 작품보따리만 달랑 챙겨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다. 그에게는 첫째도 작품이요, 둘째도 작품이었다. 나운영은 말하기를 “작품은 나의 분신分身일 뿐만 아니라, 이중 하나라도 타버린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보람과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였다.⁹²⁾ 그러던 그가 일부 작품을 소각하였으니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나운영은 이 일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 적이 없기에 내막을 알 길은 없고, 어느 신문기자와의 인터뷰 중 그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태워버렸다고 무심히 넘긴 적은 있다. 나운영은 앞서의 사건에서도 그랬고, 이 이후에 발생한 다른 사건에서도 변명이나 해명, 설명 등을 하지 않는다. 착각, 소각, 새 출발 등의 낱말로만 자신의 심정과 각오를 표현할 뿐이다.

6월 7일 아세아 연구에 논문 「해방 후 한국에 미친 미국음악의 영향과 그 반응」을 발표하였다.

7월 14일~20일 대한합창단 주최로 제5회 교회음악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유경손, 김호은과 함께

92) 나운영 수상집 3집 ‘스타일과 아이디어’ 113쪽

강의를 하였다.

8월 1일 「첼로 소나타 1번 “클래식”(Cello Sonata No.1 “Classic”)을 이방은의 첼로와 임자향의 피아노 연주로 방송을 하였다. 이 곡이 방송으로 연주된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유성호텔에 머무르며 작곡을 하였다.

8월 18일 스테레오 녹음기를 구입하였다.

10월 30일 윤동주의 시에 곡을 붙인 「서시」를 작곡하였다.

11월 8일 「Shinawi for Brass, String & Percussion」이 TBC에서 방송 재연되었다.

12월 1일 **성남교회 성가대 지휘 근속 20년 기념으로 유경손과 함께 표창을 받았고 서울음악제 작곡 심사위원에 취임하였다.**

12월 논문 음악연세에서 「나의 작곡기법 공개 3-교향곡 제4,5,6번을 중심으로」를 출판하였다.

1969년(48세) 1월 11일 나운영 부부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음악학원을 만들기로 하고 남산에서 내려와 서울성남교회로 접어드는, 동자동 코너에 있는 도동약국 2층을 빌려 서울음악아카데미를 개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학원명이 문제였고, 또 이 서울음악아카데미의 원장을 나운영으로 한 것도 후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먼저 서울음악아카데미라는 학원명이 문제였는데,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OO음악학원이라고 해야 인가를 내줄 수 있다며 인가서류를 반환하였다.

나운영은 내심 이 서울음악아카데미를 콘서트바토리처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서울음악아카데미’까지가 고유명사라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끈질기게 설득하였다. 즉 OO음악학원이라고 할 때 그 앞의 OO에 서울음악아카데미를 붙여 ‘서울음악아카데미 학원’이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억지를 부린 것인데, 다행히 담당자가 이를 인정해 2월 25일 정식으로 서울음악아카데미로 학원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원장 임명이 문제였다. 음악학원 운영도 유경손이 해야 하는데, 이미 유경손이 윤경유치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있었고 당시에



[고혜성, 이해영 목사님과 함께]

는 겸직을 금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음악학원장을 나운영의 이름으로 인가를 받고 실질 운영은 유경손이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 연세대 학장을 사임하게 된 명목 중의 하나가 될 줄이야... 당시로서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다. 어쨌든 서울음악아카데미는 지역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생들이 날로 늘어갔고, 유치원도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 날로 인기를 더 해 가기 시작했다.

3월 1일 나운영은 난생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바로 서울음악아카데미 원생용 차였는데, 아마도 랜드로버였던것 같다. 앰블란스처럼 생긴 차였는데, 뒷문을 열면 버스처럼 양쪽으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차였다. 물론 한참 된 중고차로서 특하면 고장나기 일쑤였다. 그래도 나운영은 자가용 자동차가 생긴 것을 무척 좋아했다. 자신은 이 자동차를 첫날 시승한 후 몇 번 이용해 보지도 못했지만...

4월 21일 「Symphony No.9」 작곡을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착수하였고, 5월 9일 예술가곡 「꿈 팔아 시름 사서」(변영로 시)를 작곡하였다.

5월 13일~6월 24일 음악감상실 아폴로에서 〈전위작곡가 작품 감상회〉를 열었는데, 첫 번째로 Foss Abend, 두 번째로 Cage Abend, 세 번째로 Xenakis Abend, 네 번째로 Schüller Abend로 개최하였다.

5월 22일 성가독창곡 「주여 오소서」(유경손 시)를 작곡하여 발표하였는데, 이 곡은 서울성남교회 특별집회를 인도하신 전영복 목사님에게 바쳐진 곡이다.

전영복(田永福, 1908~1980) 목사는 일본 사람으로 오다유지가 본명이다. 관서성서신학교에 다니며 아프리카 선교를 계획하던 전영복 목사는 어느 날 조선에서 온 유학생을 만나 3.1운동 때 저지른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 알게 된다. 큰 충격을 받은 전영복 목사는 이때부터 방향을 바꾸어 21세에 단신으로 목포에 상륙하였다. 이때부터 한국 선교에 온 힘을 다하는 한편 일본의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다가 투옥 당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두만강에 흘렸던 사랑의 강물』을 남겼으며, 말년에는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는데, 나운영은 일본 사람이면서도 자기 민족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속죄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전영복 목사님을 존경하여 이 곡을 헌정한 것이다.

7월 16일~20일 부산 영락교회에서 열린 부산교회음악협회 주최 교회음악강습회에서 강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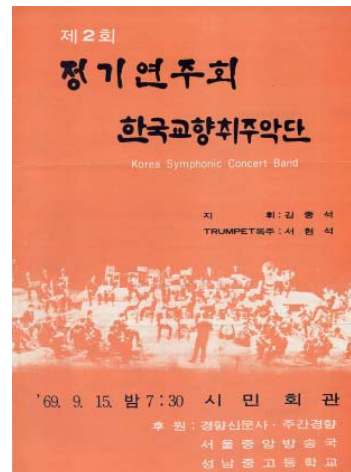
7월 21일 대합창연주회에서 「인류찬가」를 발표하였다.

8월 4일 창랑 장택상(구 상 시) 「조가(弔歌)」를 작곡하였다.

9월 4일 워커히 호텔에서 「교향곡 제11번」 작곡을 시작하여 9일 완성하였는데, 교향곡 9번,10번보다 먼저 작곡된 이 곡이 11번째 교향곡이 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나운영의 작곡습관 때문이다. 나운

영은 작곡계획을 세우면 작곡메모 수집에 세부적인 계획과 테마 들을 기록하였다가 호텔에 스스로 감금되어 한 번에 써 나갔다. 그래서 교향곡 9번과 10번은 비록 그 스코어가 다 완성되지는 않았어도 이미 작곡을 착수하였기에 그의 머리 속엔 작품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곡은 Symphonic Band를 위한 곡으로서 제2악장에서 농악 장단을 활용하였고, Whole tone Scale에 의한 Cluster의 첫 시도인 동시에 신원시주의적+신민족주의적 작품으로서 스트라빈스키의 영향이 짙게 나타난 작품이다.⁹³⁾ 이 곡을 「Symphony No.11 for Symphonic Band」라고 이름 붙이고 15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국 교향 취주악단 제2회 정기연주회>에서 김종석(金鍾錫)의 지휘로 초연하였다.



9월 15일 예술가곡 「산」(김소월 시)을 작곡하였다. 나운영은 소월의 시 '산'을 10년 이상이나 외우고 다니다가 작곡하였는데, 그것은 이 시가 서정적이면서도 극적이고, 극적이면서도 서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나운영은 이 서정적인 면과 극적인 면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를 고심하다가 드디어 작품을 완성한 것이다.⁹⁴⁾ 그래서 나운영은 자신의 예술가곡 중에서 「접동새」 다음으로 이 「산」을 애지중지하였다.

10월 3일 워커힐 호텔에서 「교향곡 제9번 “산조”」,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동시에 작곡하기 시작하였다.

10월 8일 예술가곡 「청포도」(이육사 시)와 예술가곡 「밤거리에서」(박치원 시)를 작곡하였다.

10월 15일 「기다림」을 합창으로 편곡하였고, 20일 『관현악법』(이상사)을 출판하였다.

10월 24일 서울음악아카데미가 유치원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매일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더욱이 나운영은 책과 레코드가 거실에 있었으므로 좀처럼 자신의 서재를 떠나지 않았고, 작곡 레슨도 학원에서 하기보다는 서재에서 주로 하였다. 한편 유경손은 유치원 원아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실다운 교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두 채 구조인 주택 중 입구 쪽 부분을 2층으로 증축하여 본격적으로 유치원과 학원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10월 28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신음악 80주년 기념 제1회 서울음악제>에서 가곡 「산」, 「청포도」와 「밤거리에서」를 테너 박인수의 연주로 발표하였는데, 이 중 「청포도」와 「밤거리에서」는 초연이었다.

93)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7쪽

94)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268쪽

1970년(49세) 1월 9일 중고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하였다.

1월 11일 유치원 신관 낙성식을 가졌다. 입구부터 가정집 대문이 아닌, 교육시설다운 현관으로 고치고, 1층에는 사무실과 기악실을, 2층에는 유치원 교실과 유치원 원아들을 위한 기악실을 배치하였다. 옥상에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유치원 교실도 그대로 살려두었다.



서울음악아카데미도 함께 이전하여 피아노반, 성악반, 현악반을 모집하였는데, 그 강사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장: 나운영, 부원장: 유경손

피아노 강사: 나효선, 장은주, 김성희, 임희순, 정명숙

바이올린 강사: 이상재, 장영은

첼로 강사: 노진호

클래식 기타 강사: 김명표.

요즘에야 조기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 당시만 해도 유아들에게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유경손은 두성발성훈련, 절대음감훈련 등 유아에게 적합한 새로운 교육법을 개발하여 이것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3월 6일 유치원명을 나운영의 가운데 자인 ‘운’과 유경손의 가운데 자인 ‘경’을 합쳐 운경유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악레슨, 미술을 포함한 본격적인 조기예술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한해 두해 지나며 두각을 나타내자 서울 각지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유아를 위한 기사를 팔려 보낼 정도로 부모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치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월 1일 1969년 10월 3일부터 작곡하기 시작한 「교향곡 제9번 ‘산조散調」(Symphony No.9 ‘Sanjo’)를 드디어 수정 완성하였다. 이 곡은 단악장 형식의 곡으로서 병행해도 음정차가 같은 새로운 음계를 창안·시도했고, 점묘적 기법을 활용한—아악의 현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 역작이다.⁹⁵⁾

2월 11일 주부들로 구성된 **서울음악아카데미 주부합창단을 창단**하였다.

나운영을 단장으로 하고, 유경손이 지휘를 하였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에 유치원 교실에서 비가 오

95)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7쪽

나 눈이 오나 2시간을 꼬박 연습하였다.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가정과 사회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 창단된 이 주부합창단은 1972년 운경주부합창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그해 10월 정식합창단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이름을 다시 운경합창단으로 바꾸고 합창연합회에 등록하였다.



이 운경합창단 단원들은 창단 이후 20~30년간 나운영 유경손 부부와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운영 부부의 모든 일에 항상 함께 하였고, 2001년 해산할 때까지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면서 9차례의 해외 순회공연과 8차례의 국제교류연주, 그리고 19차례의 국가행사 및 군위문을 위한 연주와 18차례의 사회봉사를 위한 연주 등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2월 23일~26일 마산에서 교회음악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3월 25일 외솔 최현배 조가를 작곡하였다.

3월 30일 <서울음악아카데미 개원 1주년기념 및 신축기념 음악회>를 서울YWCA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신혜일, 장영혜, 조경숙, 박수경, 강수경, 김익자 학생들의 피아노 독주와 함께 서울음악아카데미 주부합창단이 유경손 지휘, 이재경 반주로 스위스민요와 한국민요, 그리고 나운영의 「기다림」을 연주하였

는데, 이 주부합창단 초대 단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휘 유경손, 반주 이재경, 총무 김은섭

제1소프라노: 김은섭, 김옥선, 김옥섭, 김현옥, 김복순, 김윤자, 김보혜, 강일광, 노정현, 문율리엣다, 박기련, 서정선, 양숙정, 양혜석, 우수경, 유성실, 이복순, 이은일, 이무완, 이옥현, 이희순, 최유산, 최공실, 하영숙, 홍창욱

제2소프라노: 김신자, 김정희, 김현재, 김호정, 김계수, 구현심, 노강진, 박태순, 유청희, 윤영랑, 이명옥, 이영실, 지복남, 최규진

알토: 장정숙, 김희순, 김동실, 김금례, 김경필, 박진숙, 박숙련, 우형선, 윤정주, 이은자, 이복자, 이숙자, 이향숙, 이정순, 정지연, 최승희

이 초대 단원 중 김신자, 유청희, 윤영랑, 이숙자, 이옥현, 이은자, 최유산 7명은 합창단이 해산할 때까지 30년간을 줄곧 함께 하였다. 마지막 연주회인 2000년 12월 15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열린 창단 30주년 기념 제27회 정기연주회 인사말씀에서 유경손은 이렇게 말하였다.

30년!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한해 한해가 새로웠습니다.
한해 한해가 보람이었습니다.
한해 한해가 기쁨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다 멈춰보니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975년 10월 3일 유경손이 작사하고 나운영이 작곡한 「운경의 노래」를 소개한다.

기쁨의 동산 운경의 품에 안겨 너와 나의 소리로 화음 이루고
그 소리 울려서 누리에 퍼진다. 운경 너의 품속은 꿈이여라.
운경 운경 내 사랑아 운경 영원하여라.

마음의 동산 운경의 품에 안겨 다시 못 올 지난날을 그리워하며
다가오는 희망에 가슴부푼다. 운경 너의 품속은 행복하여라.
운경 운경 내 사랑아 운경 영원하여라.

5월 9일 연세대 근속 15주년 표창을 받았다.

5월 20일 제2수상집 『독백과 대화』(민중서관)을 출판하였는데, 그 후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수상집 『주제와 변주』를 낸 지 어언 5개성상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학보, 신문, 잡지 등에 발표했던 것 중

에서 요청에 따라 약 60편을 추려 보았습니다.

제2수상집을 <독백과 대화>라 제(題)한 것은 수많은 음악 인구를 상대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 싶은 때문입니다.

이 음악주변의 이야기가 민족음악을 수립하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날 논문 「영산회상의 작곡학적 연구」를 연세논총 7호에 발표하였다.

6월 4일 은혼식(銀婚式)을 성남교회에서 거행하였다.



은혼식이란 결혼 25주년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유경손의 제의에 나운영은 조금 요란스럽기는 하지만 은혼식(隱婚式) 즉 ‘숨어서 하는 결혼식’도 아닌데 어찌나하며 동의하였다. 만 딸 나효선의 피아노에 맞추어 둘째딸 효진과 아들 건을 들리리로 하여 까만 예복차림을 한 나운영과 은빛 드레스를 갖추어 입은 유경손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입장하였다. 이해영 목사(서울성남교회 담임목사)가 주례를 서고, 전택완 장로가 축하기도를 한 후 유경손이 25년 동안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예물반지를 드디어 손가락에 끼었다.

유경손은 25년 전 결혼식을 할 때 결혼반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내내 섭섭해 했었다.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이어서 조금 한 줌도 마음대로 살 수 없던 25년 전,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은가락지 한 쌍을 결혼반지로 주시기로 하였으나 그 반지를 가지고 와야 할 사람이 결혼식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친구가 끼고 있던 진주 반지를 결혼반지로 대신하였던 사연이 있었다. 나중에 그 은가락지를 받긴 하였지만 결혼반지로서의 의미가 없었던 때문으로 유경손에게는 그다지 소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은혼식을 맞아 25년 만에 정식으로 결혼반지를 끼게 된 것이다.

나운영 부부는 그동안 참 많은 이들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하여 주었었다. 특히 1957년에 유경손이 작사한 「축혼가」에 나운영이 곡을 붙여 이 곡을 나운영의 반주로 유경손이 직접 불러주곤 하였다.

오! 경사로운 날 오! 경사로운 날

맑고도 깊은 사랑 변함이 없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굳은 맹세로써 열매 맺는 날
 자연은 찬양하고 우주는 포옹한다
 오! 즐거운 이날 두 사람 앞길에 행복있으라

이제 그 둘은 스스로 결혼 25주년을 기념하며 「은혼식 노래」를 만들었다.

신뢰와 사랑이 엮힌 우리들의 지난날
 세월은 살같이 흘러 스물다섯해라네
 오! 내 사랑하는 님 내님 그대 사랑 변찮아
 지난 날을 더듬어 사랑을 노래하리

이 곡을 서울음악아카데미 주부합창단(후에 윤경합창단으로 변경) 45명이 불러주었다. 이어 나운영은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했다.⁹⁶⁾

부부생활이란 소나타형식과 같은 것이어서 서로 성격이 다른 남편(제1주제)과 아내(제2주제)가 제시부에서 결혼생활이 시작되어 이제 25년 만에 드디어 발전부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 잘 살아서 재현부의 금혼식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우리 두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운영은 스스로 하숙생치고는 좀 비싼 돈을 내는 하숙생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나운영은 매월 봉급이 나오면 그 봉급을 몽땅 유경손에게 바치고 그중에서 거꾸로 십일조(?)를 용돈으로 받아냈기 때문



이다. 나운영은 늘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다. 약간의 동정도 받아가면서... 하지만 그 많은 책과 레코드관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유경손의 알고도 모르는 척 넘어가주는, 통이 큰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운영은 강연이나 위촉 작곡을 통한 기타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유경손에게 알리지 않고 전부 책과 레코드관을 사는데 사용하였는데, 사실 유경손이 모를리 없었고, 그것도 모자라 수입서점에 외상값이 잔뜩 밀리게 되면 유경손이 그것을 갚아 주었다. 이렇게 25년을, 그리고 또 그 다음 23년을 함께 지냈다.

96)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77쪽

금혼식^{金婚式}을 2년 남길 때까지...

7월 10일 논문 「Idea와 Technique-관,현,타악기를 위한 시나위를 중심으로」를 예술논문집 9호에 발표하였다.

8월 3일~12일 제3차 제주도 민요수집 여행을 다녀왔다. 제2차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이보형이 동행하였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민속박물관 진성기와 제주도 토박이 고산학이 함께 하였다.

10월 2일 성가독창곡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시 67편)을 작곡하여 18일 이 동범 한국 성가 독창회에서 초연하였다.

10월 8일 제2회 서울음악제에서 위촉 작품인 「교향곡 제9번」을 김선주 지휘로 초연하였다.

11월 22일 성남교회 장로로 피택되었다.

12월 30일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작곡하였는데, 이 곡은 피아노로 가야금·거문고의 효과를 낸 신원시주의적 작품이다.⁹⁷⁾

97)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7쪽